

유기적인 목양에 대한 온전케 하는 훈련

2007년 2월 4일

메시지 4

진리를 배우기 위해 시간을 구속함

성경: 딤편 4:6-7, 마 24:45, 벧전 2:2-5, 엡 5:16, 18-19, 골 3:16, 율 2:25

I.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어 적절한 때에 집안 식구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우리는 선한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한다—딤편4:6, 마24:45.

- A. 양육받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다. 그것은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
- B.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그리스도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 C. 선한 가르침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담고, 전달하는 달콤한 말씀으로 그분의 믿는이들을 양육하고 교화하며 강화시킨다.
- D. 선한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한다—딤편4:7.

II.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취하여 들임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통해 우리는 제사장 체계로 조성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영적인 제물을 드리게 된다.

- A. 순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전달되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의 이해를 통해 우리의 속 사람을 양육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기능에 의해 동화된다—벧후2:2, 각주3
- B.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은 거룩한 제사장 체계에 이르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2:2, 각주5
- C.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외적으로 제사장의 겉옷을 포함한 제사장들의 옷과 또 내적으로 제물들을 포함한 제사장들의 음식 둘 다를 포함한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기 위해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는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하고 또 내적으로 그리스도로 양육되어야 한다—참조 눅15:22-23.

III. 시간을 구속하고 또 영과 말씀으로 충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엡 5:16, 18-19, 골3:16.

- A. "시간을 구속하라 때가 악하니라"—엡5:16.
 - 1. 악한 때는 "사람의 때"로(고전 4:3 각주2)서, 여호와의 때와(율1:15, 벧후 3:10) 대조된다.
 - 2. 우리는 "사람의 때"에 잃은 것들을 구속하여 "여호와의 때" 곧 "주의 날"의 도래를 재촉해야 한다—겔13:5, 30:3, 습1:8-9.
 - 3.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놋과 황충과 팻종이의 먹은 해 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율 2:25하.
- B. 시간을 구속하는 길은 영과 말씀으로 충만되는 것이다.

IV. 일상 생활 가운데 합당한 시간표를 세운다.

- A.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에 있어서 예산을 세운다.
- B. 매주, 매일 주님을 위해 얼마간의 시간을 따로 떼어 두어야 한다.

V. 진리의 합당한 교육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개인의 방면

- A.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세운다.
 - 1. 매일 최소한 삼십 분을 말씀에 드린다.
 - 2. 몇 구절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각주를 연구하며 라이프스터디 메시지를 함께 추구한다.
- B. 주님과 말씀 안에서 견고한 기초를 가질 필요성.
- C. 생명과 진리에 의해 점차적으로 자란다.
 - 1. 자양분과 결과는 영원하지만 자양분 자체는 일시적이다.
 - 2. 일단 진리가 어떤 사람 안으로 조성되면 영원히 남는다.

D. 사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수고함.

VI. 진리의 합당한 교육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집회의 방면

- A. 우리의 집회들은 살아 있고, 양육하며, 교육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우리의 교회 집회들은 영과 생명과 기도로 충만하고 신선하게 하는 분위기로 충만해야 한다.
 - 2. 우리는 기본적인 진리에 따라 성도들을 교육해야 한다.
- B. 우리는 모든 교회집회들이 교육적인 중심들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 C. 성도들에게 진리의 온전한 지식 안에서 합당한 교육을 제공한다.
- D. 인도하는 자들, 동역자들과 집회를 돌보는 이들은 집회들을 위해 예비되어야 한다.

VII. 신약사역의 풍성 안으로 들어감

- A. 회복역 성경
- B. 신구약의 라이프 스타디
- C. 아침 부흥을 위한 거룩한 말씀
- D. 일 년에 일곱 차례 있는 집회와 훈련들에서 나온 메시지들
- E. 새 신자들을 위한 재료들
- F. 정기 구독(Direct Mailing Service)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한 부분: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음

6절에 따르면 우리는 또한 우리가 긴밀히 따른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되어야 한다. 선한 가르침의 말씀들은 그의 믿는 이들을 양육하고 함양하며 강건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포함하고 전달하는 감미로운 말씀들이다. 사실상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의 말씀은 같은 것이다.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가르치려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러한 말씀들을 긴밀히 따라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긴밀히 따르고 이러한 말씀으로 양육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가 합당하게 영양을 섭취할 줄 모른다면 자녀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일 줄을 모를 것이다. 자신의 영양 섭취의 체험을 통하여 그녀는 자녀들에게 어떤 음식이 가장 좋은 줄을 알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로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긴밀히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하며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디모데전서 라 이프스터디 75-76쪽).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함

2절은,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거듭남을 통하여 태어난(1:3, 23) 믿는이들은 영적인 젖으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더욱 전진된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2절에 있는 ‘순전한’은 ‘섞인 것이 없는’이라는 뜻이 아니라, 순수하지 않은 가르침과 반대된다. 오히려 ‘순전한’은 1절에 있는 케홀과 반대된다. 케홀이 없는 젖은 악한 목적이 없고 혼을 양육하는 것 외에 다른 목표가 없는 젖이다.

‘말씀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기코스(logikos)이다. 로마서12장 1절에서 ‘합당한’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의 로고스(logos)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합당한’이라는 뜻이다. 말씀의 젖은 몸을 위한 젖이 아니라 혼, 즉 내적 존재를 위한 젖이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의 이해를 통하여 우리 속사람을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며 또한 우리의 지적인 기능에 의해 흡수된다.

문법적으로 1절은 2절에 있는 주어를 수식한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2절에 있는 ‘순전한’은 1절에 있는 ‘케홀’과 반대된다. 아마 회복역만이 2절의 ‘순전한 젖’에 ‘케홀이 없는’의 의미를 밝힐 것이다. 다른 번역들은 ‘순수한 젖’ 또는 ‘섞이지 않은 젖’이라고 번역한다. 베드로가 ‘순전한’이라는 말에 ‘순수한’, 또는 ‘신실한’의 의미를 포함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베드로서의 목적은

‘퀘홀이 없음’과 ‘악독에서 나온 퀘홀’을 대비하는 것이다(베드로전서 라이프스터디 125-126쪽).

일상 생활에 합당한 시간표를 만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진리에 대한 합당한 교육 안으로 이끄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두 방면—개인적인 방면과 집회의 방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서기 위한 토대로서 개인적인 길을 소유해야 하며, 그런 다음 더 나아가 집회 방식을 관심해야 한다(장로 훈련 3권 165쪽).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을 위한 합당한 시간표를 짤 필요가 있다. 이전에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 살지 않았으며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것과 같았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 살고 있으므로 새로운 생활양식을 세워야 한다. 먼저, 생활의 작은 것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늦잠자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아침 여섯시 반에는 일어나야 한다. 일어난 후 맨 처음 할 것은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활의 좀 더 중요한 것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위를 추구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므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변화된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의무를 합당하게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것을 특별히 탐하지 않으면서 합당하게 공부하고 합당하게 일한다. 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전에 우리의 생활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노력과 싸움이였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며 가족을 부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단순한 생활을 한다. 우리가 사업에 뛰어드는 때에라도 우리는 근신함으로 그리해야 한다. 우리는 다만 균형이 잡힌 수고를 한다. 우리는 탐욕스럽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다. 또한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여러분이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외적인 생활 방식이 여러분을 통제로 삼키고 묶어버릴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생활 방식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며 주님을 섬기고 자 하는 우리의 갈망과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직장인 성도를 위하여 105-106쪽).

진리 안에 있는 합당한 교육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개인의 방면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세움

우리는 성도들이 매일 말씀 안에서 적어도 삼십 분을 보내는 실행이나 습관을 세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아침에 10 분, 저녁에 10 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 분으로 나누어 할 수 있다. 최상의 길은 신약의 어떤 책을 택하여 공부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그들은 매일 계속해서 이 책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몇몇 성도들은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공부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들은 매일 10 분씩 세 번 공부하거나 30 분씩 한 번에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권하여 이 책의 두세 구절을 매일 기도로 읽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에 따른 메시지를 공부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모든 구절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 성도들은 매일 이 길을 취하여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1 년이 지날 때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 견고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몇몇 구절들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느린 것 같지만, 우리는 호흡하는 것이 느린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한 번에 약간의 숨을 쉴 뿐이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습관이 축적되어 우리로 계속 살아 있게 한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비록 성경 전체를 끝마치는데 10 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놀라운 것이다. 5 년이 지난 후에 신약 절반에 담겨 있는 진리를 얻는다면 놀라운 것이다. 우리는 성도들이 욕심을 내도록 부추기거나 하루에 성경 한 권을 마치도록 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위는 터져 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들을 격려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이 서서히 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인내의 문제이다.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성경 공부에 인내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매주 그들을 상기시켜야 하고, 때때로 장로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지도와 격려와 동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장로 훈련 3권 168-169쪽).

말씀의 견고한 기초가 필요함

나는, 오백 개의 라이프-스터디 메시지를 철저히 통독한 사람은 다 뛰어난 믿는 이들이 되었음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방 교회들을 목양하고 있는 장로들은 성도들 대부분의 실지 상황을 알고 있다. 만일 여러분 지방의 어떤 성도가 그다지 ‘온당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그가 내일 아침부터 라이프스터디 메시지들을 읽기 시작하여 오백 개까지 읽는다면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내복약과 자양분과 온갖 비타민이 이들 메시지 안에 담겨 있다. 이것이 내가 앞에서, 내가 접촉해본 성도 중 몇몇이 라이프스터디를 많이 읽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 이유이다. 나는 그들이 ‘내복약과 자양분’을 섭취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들의 대화 가운데는 질병의 증세와 증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가 그의 환자를 위해 어떤 약을 처방해 주고 그 환자가 두 달 후에 다시 왔을 때, 의사는 그 환자가 약을 복용했는지의 여부를 말할 수 있다. 그 환자의 숨 쉬는 것과 혈색과 온 존재가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았음을 의사에게 말해 준다. 만일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매일 라이프스터디를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심지어 50 일만 지나도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165-166쪽).

생명과 진리로 인해 점차적으로 성장함

자양분의 결과는 영원하지만, 자양분 자체는 일시적으로 머물 뿐이다. 그렇지만 일단 진리가 어떤 사람 안으로 조성되면 그것은 영원히 그 사람 안에 남아 있게 되며, 그 남아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의 공급이다. 긴 경주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으로 견고하고, 살아 있으며, 항구적인 진리가 있는 이러한 교육이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 조화를 만드는 공장 같은, 하룻밤 사이의 성공을 기대하지 말라. 여러분은 하룻밤 사이에 많은 꽃들을 생산할 수 있겠지만, 정원에서 진짜 묘목이나 꽃들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단숨에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붙잡지 말라. 여러분은 2년 내에 굉장히 많은 인수가 교회에 더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이 알맹이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버섯이 자라는 것과 같다. 우리는 진리와 생명에 의해 점차적으로 자라는 방식으로 교회를 돌보아야 한다(185-186쪽).

진리의 합당한 교육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집회의 방면

우리는 신약의 사역을 수행하는 최상의 길을 발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나는, 인도자들인 우리가 사역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우리의 회중을 그 안으로 이끄는 길을 발견해야 한다고 느낀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집회들을 살아 있고 충분히 자양분을 지닌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기본 진리로 성도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주의 회복 안에서 집회를 해온 모든 성도들이 신약 경륜에 대한 충분하고도 견고하며 기본적인 교육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집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편으로는 자양분을 얻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살아 있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153-154쪽).

나는 율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장로들이 집회를 실행하는 길을 재고해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종교적인 길을 갈 수 없다. 오늘날 우리의 집회하는 방식까지도 여전히 종교적인 방식에 아주 많이 지배되며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집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성경 몇 구절을 읽고 얼마의 메시지를 공급한다. 수년 동안 우리의 집회에 참석해 온 사람들은 결국 어떤 종류의 감동을 얻을 따름이다. 이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결국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으실 것이다.

나는 우리가 성도들을 합당한 지식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 집회를 교육의 중추로 삼아야 한다고 느낀다. 우리의 집회는 다만 아이들을 먹이는 음식점이나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어떤 아이의 부모가 자녀가 열 살이 될 때까지 교육을 관심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사회에 그리 유용하지 못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합당한 부모라면 틀림없이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자라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할 뿐 아니라 마땅히 진리에 대한 합당한 지식으로 교육받고 세워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인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각주가 있는 회복역과 라이프스터디 메시지를 추구해야 한다. 만일 모든 성도들이 5년 동안 신약 전체를 회복역 각주와 함께 라이프스터디를 사용하여 전부 끝낼 수 있다면, 나는 주님께 경배할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다(219-221쪽).